**블라인드**

**부제 :눈 먼 사랑**

**by Younghun,Han**

기괴한 사랑 이야기.

기수(20대 중후반) :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 무엇이라도...

아진(20대 초중반) : 고아원에서 사고로 시력을 잃었다. 시력만 되찾는다면...

세상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1 좋은 집, 침실 – 낮**

밝고 좋은 집,

침대 위 아진은 잠을 자고 있다.

침대 뒤로 멀뚱하니 서있는 기수는 물끄러미 그녀를 내려 보고 있다가

침대에 조심스레 올라 아진을 내려다본다.

기수, 아진을 내려다보며 묘한 표정

아진의 눈 주위로 보이는 진물

기수, 아진의 눈에 안약을 한 방울 떨어뜨린다.

아진, 악몽을 꾼 듯 놀라서 일어나 앉는다.

눈은 게슴츠레 반만 뜬 상태로 흰 눈동자만 보인다. 눈을 완전히 뜰 순 없다, 장님

아진 : 아..아아! 허헉!! 하지마... 헉...

기수, 아진에게 들키지 않으려 다시 조심스레 침대에서 내려간다.

아진 : 누구야!?

(침대를 더듬어 침대밖을 향해) 오빠..? 오빠야?

기수 : (조심스레 뒷걸음질... 태연하게 다시 방 안으로) 어! 일어났어?

기수 : (아진의 팔을 잡아 부축하며) 왜? 무슨일이야?

아진 : (기수에게 안기며.. 거친숨) 헉..헉...몰라 안좋은 꿈꿨어...

**-타이틀 , 블라인드**

**#2 좋은 집, 거실 – 낮**

햇살이 잘 들어오는 좋은집 거실

소파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아진,

자포자기 표정.. 한 모금 더 들이킨다.

아진 : (포기한 웃음) 아... 헤...

기수 식탁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진을 빤히 쳐다보고 있다.

아진이 일어서 창밖을 보고 선다.

창밖을 향해 냄새를 맡는 듯

아진 : 흐~음.. 오늘 날씨 어때?

창밖 날씨는 화창하다.

기수 : (아진 곁으로) 날씨가.. 음.. 아주 흐리고... 눈도 내리...네..

아진 : 헤! 눈이 내려? 아.. 보고싶다 눈 내리는거...

(유리창에 손을 뻗어 눈을 만지려는 듯 뽀각뽀각-소리)

기수 : 후... 눈이 많이 내리네...

아진 : 오빠, 눈 그치면... 병원 한번 가볼까?

기수, 답답한 듯 숨을 들이마시고 하늘보고 고개를 갸우뚱..

기수 : (절제) 후... 아진아..그게

아진 : (끊으며) 아! 어제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알어?

(미소) 다섯 살 땐가..? 보육원에 노란담장 기억나?

아… 오빤 파란색일 때 왔나?

기수 : ...

아진 : 아... 왜 기억이 잘 안나지? 아… 그게 중요한게아니라

색이 記憶난다는 건..그때까지 내 눈이 정상이었다는 거잖아.

기수 : (일그러진 얼굴) 아진아.. 우리 이제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하..! 나도 니 맘아는데..

아진 : 으음... 하.. (울먹) 정말 오빠가 내 마음을 알까?

아진, 뭐라 말하려다가 감정을 억누르며 술병을 들고 더듬더듬 방 안으로 들어가고

기수, 그런 아진의 뒷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운 듯 머리를 감싸다가 옆 소파에 눕는다.

기수 : (N) 나도...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창문 안으로 드리운 그림자 빠르게 움직이고, (시간경과)

Fade\_IN\_Out

거실, 조용히 걷는 아진의 발,

어느새 싱크대 앞에 선 아진 손을 더듬어 싱크대에서 칼을 찾아 들고,

무표정한 얼굴,

칼을 들고 소파에 누워있는 기수 앞으로 간다.

잠들어 있는 기수

아진, 손을 뻗어 기수가 자는지 확인한다.

기수, 인기척에 눈을 뜬다.

한손에는 칼을 들고, 한손으로 허공을 휘적거리는 아진의 모습이 보이고,

기수, 조용히 미간을 찌푸린다.

기수가 미동이 없자, 아진 뒤를 돌아 화장실로 향한다.

뭔가 일을 벌일 것 같은 아진의 표정…

기수, 가만히 뒤에서 지켜보다... 인기척을 낸다.

기수 : 으흠..!

아진 : (움찔, 재빨리 칼을 숨긴다) ...음

기수 : (방금 일어난 척) 아~... 또 소파에서 잠이들었네

(아진을 우연히 발견한 듯) 어! 아진아, 거기서 뭐해? 배고파? 밥차려 줄까?

아진 : 일어..났어?

기수 : 아…비켜봐 아…배아퍼…

기수, 화장실로 들어가고

아진, 숨겨둔 칼을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는 방안으로 들어간다.

이어 조심스럽게 열리는 화장실 문, 기수가 나온다.

기수, 소리가 나지 않게 한숨을 쉬고,

싱크대 한 켠에 놓여 있는 칼을 확인한다.

칼끝에 묻어 있는 핏자국

기수 : (한숨) ...하....

Jump

기수의 멍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 보고 있다.

점점 심각 해져가는 기수의 얼굴 위로 보이스 오버

창밖을 멍하니 보며 통화하는 기수

보험 : (V) 사고로 다치시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 되시고요.

기수 : (V) 시력장애는 얼마나..

보험 : (V) 네?

기수 : 그냥 궁금해서..

보험 : (V) 후유장애는 1억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험서류 먼저 받으시면 동그라미 쳐진 부분에 사인해주시고..

계약은 30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며...

아진손, 서류에 사인중... (피보험자 옆 동그라미 쳐진 부분)

기수, 아진 두사람 소파에 앉아 서류에 사인중

기수, 고민하다가

수탁자 옆에 김기수 사인

아진 : 근데, 이게...뭐야?

기수 : (복잡.. 아진 쓰다듬으며) 아진아! 이제 우리 수술하러 갈거야

아진 : ..뭐? 수술? 무슨..

기수 : (복잡)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수술 받으면.. 다시..좋아질 수 있데

아진 : (울음..터진다) ...흐허어억.. 흐억...헉...

기수 : (복잡 미묘한 표정 웃는 듯 우는 듯) 미안해.. 더 빨리 해줬어야 되는데...

아진 : (기수 품에 안기며) 흐어허허헉...오빠.. 하흑...

기수 : (기괴한 표정) 울지마.. 널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암전

**#3 좋은집 욕실 \_ 낮**

욕실 겸 화장실,

세면대에 얼굴을 비춰보는 아진

눈 주변 붕대가 감겨 있지만 설레는 얼굴 감출 수 없다

아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붕대를 푼다.

붕대를 풀자 시커멓게 멍든 눈

눈을 조심스럽게 떠본다.

눈으로 빛이 새 들어오고

눈부신지 눈을 꼭 감았다가 떠보면

눈에 들어오는 세면대 모습

아진 : (떨리는 숨소리) ...하...아...하아... (몸을 떨며 서럽게 울듯하다가)

(환해지는 얼굴) 까~아악!! 보여!! 다 보여!

욕실 문을 열고 나간다.

**#4 허름한 집 거실 – 낮**

아진, 욕실 밖으로 나서면

낯선 허름한 집... 좁은 거실이 나타난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고

좁은 거실을 둘러보며 갸우뚱하는 아진,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

아진 다시 눈을 감고 한 손으로 벽을 만져보고 깜짝 놀라 눈을 뜬다.

아진 : (주변을 돌아보고) 여기가... 오빠... 오빠...?!

기수 : (어깨가 보인다) ..

아진 : (기수를 보고 일그러지는 얼굴) ...오빠? (고개를 절레절레)

기수의 모습 지저분, 두 눈을 가린 붕대 위로 비치는 피고름

기수 : (안보이는 눈, 허공을 향해 뻗은 손) 아진아..

아진 : (거친 숨소리) ...

기수 : 아진아...나야!

아진 : 오..오빠..

기수 : (환해지는 얼굴) 하... 그래 나야.. 잘 보여?

아진 : (숨막힘) ..근데.. 눈이.. 왜 그래?

기수 : (표정 굳어졌다 풀어지는) 아... 잘 보이는구나... 다행이다.

아진 : (목매임) 눈이 왜 그러냐고..?

아진, 복잡한 표정, 기수의 얼굴에 몰래 손을 가져다 대고 붕대를 살짝 만졌는데...

기수 : (고개를 피하고) 아악!! 으..

아진 : (손 끝에 묻은 피, 숨이 가빠진다) 왜.. 도대체.. 무슨 짓을 한거야?

기수 : (눈을 어루만지며) 으...아! 아니.. 내가 그랬잖아...

(미소) 널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아진 : (충격) 하..

(무릎을 꿇고 눈을 가리고) 으~~아아악!!

(눈을 뽑을 듯) 이건..아니야..이건아니야.. 아...아~~아악!!!

Fade OUT

기수(v) : 아진아! 아진아!! 왜그래..? 정신차려... 아진아!!

**#5 허름한 침실 – 낮**

Fade IN

침대에 눈을 감고 누워있는 아진.. 눈을 뜨고

화들짝 놀라 일어난다.

옆, 자는 기수

아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방안을 둘러보면 별것 없이 휑한 방안

아진, 기수를 보고 잠깐 멈칫.. 기수를 깨우려는 듯 불러본다

아진 : (손으로 살짝 흔들며) 오빠..오빠?

기수 잠들어 미동이 없다.

아진 : (기수를 보고 한숨..머리를 짚고) 하...

일어나.. 창문을 열어본다.

앞 건물에 턱 막혀 답답한 풍경

아진의 모호한 표정

기수는 곤히 잠이 들어 있다... 현관 도어락 열리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에 잠에서 깬다.

기수 : (앉으며) ...아.. 아진아?!

(다시 침대에 털썩 누워) 아...

눈을 뜨고 하루하루 산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다.

**#6 서울역 – 낮**

서울역 앞 노숙자들의 뒷모습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 사이로 아진이 덩그러니 서서

이곳저곳 어색하게 노려보다 화면 밖으로

INSERT 옷가게 앞 화려한 쇼윈도를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진

기수 : (V) 사고 싶은 건 그냥 눈으로만 보게 될 거야

INSERT 동네 골목길을 걷다가 구석 ‘벼룩시장’신문을 기웃기웃.. 신문 꺼내는 아진

기수 : (V) 제발.. 그렇게 발버둥 치지마

(다음씬 대사와 연결)

**#7 허름한 집 거실 – 낮**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기수의 얼굴

기수 : 그래봐야 (허탈 웃음) 하하하학...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결국 제자리거든

맞은 편에 서서 벼룩시장을 보고 있는 아진

아진 : 급구 도우미 모집, 월 사백보장.. 이건 어때?

기수 : (한숨) 하.. (안보이는 손을 휘휘 저어 아진의 신문을 뺏는다)

아진 : ..왜?

기수 : (신문을 구기는) 이런거 보지마.. 다 사기야

아진 : 거기 ...가전제품 조립공장? 그런데도 있었단말이야.

기수 : (한숨) 하... 거기서 일하면 백혈병걸려...

아진 : ...아니 거기.. 계단 청소도 있던데...

기수 : (구깃구깃한 신문을 툭 던지고) ...허

아진 : ...

**#8 한적한 도로 – 낮**

한적한 2차선 차도 그 옆 아진, 기수가 인도로 걷고 있다.

아진이 기수를 부축하며 걷는다.

아진 : (막막) 눈이 보이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멈춰서..울먹) 나..정말 하나도 쓸모 없는 인간이 돼버린 것 같애..

기수 : (잠시...황당 듯 후 웃음) ...하하하...

아진 : (어색, 울음을 참는) 흐으흑...

기수, 안 보이는 눈으로 옆을 힐끔 돌아보고

차도 뒤편에서 달려오는 승용차...

기수 : 아진아.. 넌 그냥 지금처럼.. 내 옆에 있기만 하면 돼.

(머리를 쓰다듬으며) 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

(심각) 난 뭐든 할 준비가 돼 있어.

점점 다가오는 차

기수 : (귓속말) 눈감아!

아진 : 어?

기수 그대로 뒷걸음친다.

그대로 자동차에 부딪히는 기수

자동차 급브레이크 소리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 앞으로 쓰러지는 기수

기수 : ..으...아아...

아진 : 까~~~아악!

(기수에게 다가가) 오빠.. 아~~~~!~!!

멀리서 바라본 앵글,

차주, 차 밖으로 나오고

아진의 비명소리

Fade Out

**#9 한적한 도로 – 오후**

Fade In

한쪽 다리를 저는 기수 터벅터벅 , 까진 얼굴

옆에서 부축하는 아진 혼이 나간 듯

아진 : (멈춰서며) ...도대체 왜 병원을 안가는거야?

기수 : (힘겹게 멈춰서며) 아...

(억지로 괜찮은 듯) 어.. 나 괜찮아.. 멀쩡해

(주머니에서 돈뭉치 꺼내 건네며) 아..! 이거 한번 세봐 얼만지

아진 : (혼란) .. 일부러 그런거야..?

기수 : (웃음) 하... 내가 그랬잖아...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아진 : (어질) ...

기수 : (돈뭉치를 아진 손에 쥐어주고) 넌.. 그냥 예쁜 옷도 한 벌 사입고.. 아무 걱정하지마.

아진, 순간 손을 빼자

땅에 툭 떨어지는 돈뭉치...

기수, 당황스러운 표정

아진 : (기수 얼굴을 쓰다듬으며) 오빠.. 내가 청소라도 할테니까.. 이러지마..제발..

기수 : (아진의 어깨를 꽉 쥐며) ...청소?

내가 너 청소시키려고 내 눈 준거 아니야!

아진 : (눈물) ...흐..으읔...

기수, 쭈그려 앉아 땅을 더듬어 돈뭉치를 쥐고

아진의 손에 건넨다

아진 : (복잡한 눈으로 기수를 바라보며 울음을 참고) 으흠...

기수 : 아진아.. 난 니가 눈을 떠서 기뻐..

그치만 눈에 보이는건 다 가짜야.. 나만 빼고.

그러니까.. 넌 그냥... 나만 믿어.

기수, 아진 이마에 입을 맞춘다.

아진, 혼란스러운 눈동자

Fade Out

아진 : (N) 눈을 뜨고 있으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진다.

**#10 허름한 침실 – 밤**

Fade In

아진, 멍한 눈으로 침대에 걸터앉아 있고, \*검은 민소매

그 옆에 기수가 이불을 덮고 누워있다.

기수, 상반신이 드러나 있고

아진, 절망적이게 머리와 얼굴을 감싼다.

엄지를 물어뜯으며 방안을 왔다갔다..

무언가 생각난 듯 책상을 뒤진다.

서류뭉치를 집어 펼쳐보는..

보험금청구 내역서, 사망시 3억지급

다시 흔들리는 아진의 눈... 눈물... , / 기수의 통화내용 보이스오버 + Intensed music

기수 : (V) 하..으욱.... 사고 났어요.. 보험금.. 보험금줘요...

보험 : (V) ..고객님 보험금 청구는 나중에 하시고.. 우선 119 신고부터 하시죠

기수 : (V) 으...아아... 안돼... 안돼... 동생... 내동생이 혼자 있단말이야!!!

아진 눈에 들어온 가족관계 증명서

그 안에 같이 놓여진 4~5세 정도의 남아, 여아 둘이 나린히 찍은 사진.

아진, 사진을 보고 혼란스러운 듯 들여다본다.

기수, 어느새 아진 뒤에 (상의를 벗고 붕대로 눈을 가린 기괴한 모습)

기수 : 뭐해?

아진 : (깜짝놀라 몸을 살짝 떤다) 아..!

기수 : (아진을 뒤에서 안으며 향기를 맡는 듯) ...으흠... 안자고 뭐해..?

아진 : (기수에게 벗어나며 절망, 혼돈, 분노) ..헉...헉..!

기수 : 왜.. 왜 그래?

아진 : (떨리는) ...하... 그럴리 없잖아.. 그 동안 내가 몰랐을리 없잖아!

기수 : (말없이 고개를 이리저리 갸우뚱) ...아...

아진 : 그치? ...아니지?

기수 : ...

아진 : (억제된 분노) 뭐라고 말 좀 해봐!

기수 : 너.. 내 동생이야. 그래서 뭐?

아.. 사람들이 욕 할까봐?

나.. 너 말고 아는 사람이 없어... 넌 있니?

아진 : (혼란) ...하...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이 알면 정말 슬퍼하실거야...

기수 : (숨이 거칠어진다) ...부모? (아진에게 다가서 어깨를 잡아 쥔다.)

아진 : ..허억.

기수 : 아진아...(울먹) 그 새끼들이 우릴 버리고 간 순간부터

내가 얼마나..널.. 지켜주려고 힘들었는지 아니?

그래.. 넌 아무것도 못봤겠지.. 그렇다고 아무일도 없었던건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됐을 것 같애?

아진 : 하아학...

기수 : 내가 널 정말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널 지켜주지 못했을거야..

난..내 전부를...전부를 너한테 줬어...

왜? ...사랑하니까!

기수, 아진에게 입술을 가져다 대고

아진, 고개를 돌려 형용하기 힘든 혼란스러운 표정..

기수의 입술이 아진의 머리카락에 닿는다

기수, 아진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

아진 : (기수 얼굴을 밀어내고) 이러지마!

기수 : (다시 다가서며) ...제발..날 조금이라도 이해해줘..

아진 : (다시 뿌리치며 거친숨) 하...악...하... 앞으로 내 몸에 손대지마.

아진, 밖으로 나가고

기수, 알 수 없는 표정

**#11 허름한 거실 – 밤**

아진, 부엌 앞에 멍하니 서 있다

칼을 꺼내... 칼날을 만진다.

다시 방안으로,

#Insert 잠이든 기수를 한참을 뚫어져라 내려보고 있다가... (미치기 직전의 표정...)

다시 방 밖으로 나와 칼을 던지고

서류뭉치를 살펴본다

그 가운데 문구 ‘사망시 3억 지급’

흔들리는, 미묘한 아진 눈빛.

**#12 한적한 도로 – 밤**

캄캄한 어둠.

기수, 아진 손을 잡고 한적한 인도를 걷고 있다.

앞서가는 아진, 다리를 절며 뒤따라가는 기수 멈춰선다

기수 : 어디까지가...

아진 : (뒤돌아보고) 오빠...

기수 : 어?

아진 : 나... 오빠 이해해...

기수 : (밝은표정) 하...

아진 : 오빠도 많이 힘들었겠지.. 다 이해해.. 그런데,

이제 우리 좀 평범해지면 어떨까?

기수 : (한숨) ...아... 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없어.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뿐이지

아진 : 그래도 나.. 한번 해보고 싶어.

평범하게 일하고.. 좋은 사람만나서.. 아기도 낳고싶어.

기수 : (허탈) 허...허.. 그럼 난..? 좋은 사람이 아니란 거니?

아진 : (기수의 손을 끌어 당겨) 오빠...우리 노력한번 해보자

기수 : 하... 내가 얼마나 더 노력해야하니...

아진 : (기수의 손을 놓고) ..

기수 : 그래... 알았어.. 내가 널 더 사랑할 수 있게 노력해볼게...

차도 위에 혼자 덩그라니 남아 있는 기수

뒤에서 달려오는 봉고차 라이트

기수 : (허공을 두 손으로 휘적) 아진아?

그대로 차에 치인다.

아진, 걷는다. 뒤로 보이는 사고현장, 넋 나간 표정

기수, 눈 주위로 감은 붕대에 피눈물이 흐른다.

**#13 허름한 거실 – 밤**

현관을 들어서는 아진

거친 숨.

싱크대에 기대

아진 : 헉...헉..헉... (울음을 참으려..복잡한 표정)

(울음을 터뜨린다) ...으아.아아악...

그때 들리는 현관문 도어락여는 소리 ‘삐..삐삐빅-’

비밀번호를 잘 못 누른 소리 ‘띠리띠리’

다시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 ‘삐빅..삑삑...’

아진, 울음을 멈추고 현관문을 노려본다

도어락 열리는 소리.. ‘띠리리릭-’

문이 열리고 기수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들어온다

기수 : 아...아..아...

아진 : 허헉...

기수 : 아진아...(손을 휘휘 저어 아진의 손을 잡는다)

아진 : ...흐읍!

기수 : (희미한 웃음) 하하하하... 이번엔 진짜 죽을 뻔했어...

(손에 든 피 묻은 돈다발을 내밀며) 여기...있어... 내가더...내가 더 노력할게...

아진 : ...으..허헉.. (다른 한 손으로 싱크대에 있는 칼을 쥔다)

기수 : (돈을 아진의 손에 꼭 쥐어주며) 아진아..

아진 : ...

기수 : 나 혼자두고 가지마... 어?!

아진, 넋나간 표정.. 칼을 기수에게 가져다 대려다가

자신의 눈을 찌른다.

아진 : 까~~~아아악!!

떨어지는 핏방울 Fade out

기수 : 아진아...아진아!!!

**#14 좋은 집 거실 – 밤**

Fade In

좋은 집 거실로 바뀌어 있다.

어느새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두 사람 눈에 모두 붕대가 감겨 있다.

바르게 소파에 앉아 있던 두 사람 서로 머리를 맞대고 꼭 끌어안기 시작한다.

아진 : (난해한 웃음) 하.. 하하...

기수 : (따라 웃는) ...아하하하...하...

아진 : 하아하...이제.. 우리 어떡하지..?

기수, 웃음을 멈추고 아진을 바라보며 눈을 가렸던 붕대를 벗는다.

멀쩡한 기수의 두 눈...

기수 : 아무 걱정하지마.. 니가 지금처럼 웃을 수 있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영원히...

아진, 기수에게 안긴다.

카메라를 바라보는 기수의 눈빛 속으로...

**Insert. #허름한집 거실**

다시 허름한 집 거실

아진이 눈에 피를 흘리고 있다.

기수, 눈을 가린 붕대를 풀자... 눈이 정상이다.

기수 : (슬프면서 기쁜) 아진아!!

**Insert. #복도** 기수 아진을 업고 복도를 걷는 뒷모습.

**#현관문** 기수가 좋은집 현관문을 연다

**Insert. #좋은집 거실**

기수, 아진을 업고 좋은 집 거실로 들어선다.

Insert. **회상 #1 좋은 집, 침실 – 낮**

침대 위 아진은 잠을 자고,

기수는 물끄러미 그녀를 내려 보고 있다.

기수가 아진의 눈에 강력본드를 떨어트린다.

**Insert. 회상 #2 좋은 집, 거실 – 낮**

거실에서 부둥켜안고 춤을 두 사람

행복해 보이는 아진의 표정

기수의 얼굴에도 웃음이 번진다.

기수 : (N)눈을 뜨는 것보다 눈을 감는 게 훨씬 더 행복한거야.

그래야, 내가 널.. 영원히 지켜줄 수 있으니까...

\_끝